

文學을 통해 본 在外同胞들의 意識性向 考察

金 容 稷

(국어 국문학과 교수)

1. 작업의 의의

이 작업은 詩와 小說 등 文學作品을 가늠자로 하여 在外同胞들의 의식성향을 살피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在外同胞들이란 우리와 핏줄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다. 여러가지 사정과 이유에 의해 지금 그들은 母國인 이땅에서 먼 異邦, 外地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생활여건과 환경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그런 환경·생활여건 속에서 우리 교포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생활하는 것인가. 이 작업의 첫째 목표는 이렇게 제기되는 물음에 해답을 얻어 내려는 데에 있다.

이 작업에는 또다른 부수적 목적 같은 것도 있다. 지금은 이땅을 등졌다고 하지만 본래 在外同胞들이란 우리와 같은 말을 써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역사와 文化傳統, 생활습속까지를 우리와 함께 해왔다. 비록 생활의 터전이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때가 오면 따듯이 맞이해 들일 마음의 준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상대방의 의식성향을 파악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작업의 또다른 목적은 在外同胞와 우리를 일체화시키는 데 필요한 발판 마련에 있다.

2. 작업의 테두리와 방법

1. 작업의 테두리

한마디로 在外同胞들이라고 하지만 그 성격은 아주 다양하다. 우리 민족은 개항 이전에 이미 農耕地를 찾아 국경선 밖의 北間島에 移住해 살기 시작했다. 또한 日帝의 植民地 體制 구축과 함께 다수의 우리 동포들은 살길을 찾아 하와이와 日本 本土로 흘러든 바 있다.¹⁾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활동무대를 세계 도처로 확산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지구 위의 거의 모든 지역이 우리 동포들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이 작업은 조사·검토의 대상 지역을 (1) 중국의 만주지역과 (2) 일본, (3) 러시아 특히 카자흐 지역과 (4) 北美洲 등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또한 조사

* 이 論文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章文閣, 1973), pp. 13-19.

방법은 시인이나 작가등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검토하는 각도에서 시도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인들에게는 所定の 說問을 하는 방법에 의거했다.

2. 대상지역의 역사 배경

이 작업의 대상지역이 위와같은 네 곳이 된 까닭을 밝혀야겠다. 우선 이들 지역은 우리 교포의 숫자가 가장 많고, 또한 그 역사도 오랜 편이다. 구체적으로 구 소련인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의 숫자는 40만 여명이다.²⁾ 이들은 대개 100년전부터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자 살길을 찾아 국경선을 넘었다. 초기에 그들이 자리를 잡은 것은 沿海州 쪽이었다. 그 후 日帝의 정치적 탄압·경제적 수탈이 이들의 이민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리고 日帝가 괴뢰 만주국을 세우자 거기서 독립투쟁을 벌인 다수의 우리 동포가 다시 그에 가세했다. 그러나 이들 거의 모두를 스탈린이 중앙 아세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무렵 소련은 日本과 전쟁준비를 해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국경선 가까이인 沿海州의 우리 교포가 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³⁾

강제 이주 직후 중앙아세아의 우리 동포들은 완전하게 유기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우리 동포들은 끈질긴 노력으로 각자의 생활기반을 닦았다. 그들은 또한 개척이민, 민족투쟁 집단의 전통도 이어 받았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들은 우리말로 된 신문을 발행하며 출판사도 경영중이다. 갖가지 애로를 무릅쓰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극장도 운영한다고 한다. 이들은 그 대부분이 우즈벡 공화국과 카자흐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다음 北美洲에는 1987년도를 기준으로 대략 70만 정도의 교포들이 살고 있다.⁴⁾ 미주의 우리 동포들 이민은 1902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사탕농장의 노동 취업자가 그 시작이다.⁵⁾ 그러나 이들은 그 후 美國과 日本이 대치상태에 들어감으로써 후속부대가 끊어졌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의 거의 모두는 1965년부터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또한 그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력이나 文化受容能力도 다른 민족에 비해 앞선다. 1970년도의 미국의 센서스는 연령 25세 이상으로 4년제 이상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이 중국인 25.6%, 필리핀인 22.5%, 일본인 15.9%, 백인 11.6%, 흑인 4.5% 인데 대해 한국인은 36.3%에 달한다고 밝혔다.⁶⁾ 이들은 또한 일부의 예외를 빼면 교민회와 교회, 동창회등 각종 조직기구에 잘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L.A 기타 지역에는 방송국을 운영하고 현지판인 국내신문을 발행하며 기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독자적 공동체도 잘 형성하는 듯보인다.⁶⁾

2) 鄭泰秀, 러시아 在蘇 韓人政策. 《해외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國際文化研究所, 1990), p. 242.

3) 상계서, p. 247.

4) 일부 기록에는 이들 숫자가 110만으로 적힌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도 외무부 발행. 《在外國民現況》 p. 13. 에 따르면 그 숫자는 517,716이다. 여기서 집계에 누락된 도피성 이민의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110만은 지나치게 추산된 것이다.

5) 高承濟, 전계서, pp. 206-207.

6) 劉寬之, 재중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 《해외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 p. 199.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총수는 1,763,870이다. 이 가운데서 10만 이상의 교포가 살고 있는 곳은 吉林省 1,103,402명과 함께 遼寧省의 198,397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도 吉林省에 있는 조선족자치주는 中國의 교포사회를 말할 때 빼어 놓을 수가 없는 곳이다. 中國에서 시행된 1982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인 거주자는 75만4,567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역 인구 187만 1,512명의 40.3%에 해당된다.⁷⁾

인구 비율로 보아서는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연변지역에서 우리 교포들은 그러나 그 지역의 정치·행정·경제를 주도하고 사회·文化·교육쪽에서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中國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가 탄생한 것은 1952년 9월 3일이다. 당시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 간부는 조선족이 72.9%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는 또한 조선족이 민족의 언어 문자인 우리말과 우리글을 제 1언어로 배우고 쓴다.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다른 어떤 종족 보다는도 생활이 알차고 그 교육 수준도 높다. 역시 1982년도에 시행된 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 교포들의 文盲率은 남자 4.7% 여자 16%로, 中國의 漢族까지를 포함한 다른 어떤 종족 보다는도 그 비율이 낮다.

이 지역에는 또한 조선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각급학교가 있고 연변대학을 비롯하여 연변 의학원, 연변농학원등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 이 가운데서 연변대학은 총학생의 65%, 교직원의 77%가 조선족이다.⁹⁾ 그런데 이런 결과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동포들은 亡國民·실향의 나그네로 만주라는 中國의 東北地方에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거기서 나라 없는 겨레의 설움을 뼈속저리게 맛보면서 재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힘을 기른 것이다. 특히 8·15후에 벌어진 國共內戰 기간 동안 우리 교포들, 특히 그 가운데서 기동력을 지닌 靑壯年들은 우리 교포들의 지위 확보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日帝의 降伏으로 終戰이 되자 中國은 곧 蔣介石이 이끄는 國府軍과 毛澤東의 共產軍이 정권장악을 위한 전쟁을 시작 했다. 이때 만주 일대에 사는 다수의 한족 청장년이 中國共產黨 편에 서서 中央政府軍과 벌린 싸움에 참가했다. 이 전투는 蔣介石軍이 本土를 포기하고 대만으로 건너간 1948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변지역에서 內戰에 참가한 전사의 숫자는 모두 5만 100명이다. 그 가운데 85%가 조선족이었다.¹⁰⁾ 또한 內戰中 연변지역에서 나온 희생자(전사자)수가 2,912명인데 그 90%가 조선족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中共政權 수립후에도 이 지역의 우리 동포들은 毛澤東이 주도한 갖가지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朝鮮族自治州가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간 우리 교포들이 누리게 된 얼마간의 권익은 바로 이와 같은 노력과 희생의 대가인 셈이다.

日本의 우리 교포는 어느 의미에서든지 우리 在外同胞를 대표한다. 이들은 그 숫자부터

7) 《延邊韓族自治州概況》(대륙문화연구회, 1989), p. 1.

8) 상계서, pp. 122-123.

9) 상계서, pp. 188-189.

10) 상계서, p. 97.

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文化,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매우 크다. 그 移民史는 대한 제국 말년,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무렵 우리 교포는 外交관계나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건너 갔다. 그리고 한일합방이 되면서 극히 제한된 인원이 취업 형태로 渡日을 했다. 192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는 1만명 선으로 나타난다.¹¹⁾ 이들은 대개 육체노동과 방적공장 하급 인부로 취업했다고 한다. 당시 日本 사회에서는 이런 류의 일들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필요했다. 그 결과 우리 교포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현지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 시기를 그리하여 自由渡航期로 명명한 예가 있다.¹²⁾

(1) 渡航沮止期の 우리 교포

한일합방 직후부터 1920년대 초까지 日帝가 한국인의 日本 취업을 허용내지 묵과한 일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國內産業을 위해 低賃金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한국인 人力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사태는 1923년을 고비로 급변하게 되었다. 매마침 日本에는 1차세계대전 이후 밀어닥친 不景氣의 여파로 다수의 실업자가 생겼다. 또한 1923년 9월 초에 關東大地震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만도 1만명 가까이 생겼고 가옥 소실과 기타 손재액이 45억 7천만원에 달했다. 당시 일본의 재정 규모는 1922년도의 일반회계가 14억 7천만원이었다. 大地震의 총피해액은 실로 그 3배가 넘는 셈이다.¹³⁾

關東大地震의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우리 동포가 日帝와 그 앞잡이들에 의해 학살되었다. 당시 관동지방에는 약 3만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2만명 정도가 학살된 것으로 추산 가능하다.¹⁴⁾ 뿐만아니라 이와 함께 가혹한 日本人들의 한국인 차별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인이라면 그들은 무조건 박해하고 추방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는 日帝의 식민지 수탈에 피폐되어 도무지 살길이 없었다. 이에 다수의 우리 동포가 그나마 막벌이 일자리라도 있는 日本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그 숫자가 1929년에 267,031명으로, 그리고 1930년도에는 298,091명으로 불어났다. 단 이들이 얻어낸 일자리는 대개가 日本人이 기피하는 단순 육체노동이었다. 1924년도의 大阪市 조사에 따르면 피조사자 88,272명 중 77,980명이 육체 노동자였다.¹⁵⁾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막벌이 중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土工들이 651,528명으로 나타난다.¹⁶⁾ 제 1기에 이어 이 무렵의 우리

11)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三一書房, 1979), p.54. 이에 의하면 1920년 제일교포숫자가 27,497이던 것이 1921년, 38,118, 1922년 70,462 1923년 97,395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12) 李光奎, 《在日韓國人》(一潮閣, 1992), p.17.

13) 高橋禎一, 歷史의 眞實, 《關東大地震과 朝鮮人虐殺》(現代史出版會, 1979), p.22.

14) 상계서, p.70.

15) 朴慶植, 전계서, p.96.

16) 李光奎, 《在日韓國人》(一潮閣, 1992), p.28.

교포들 생활도 밑바닥을 헤맨 것이다.

(2) 強制連行期

1930년대가 되자 日帝는 세계재패의 야욕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만주를 점령하고 이어 中日戰爭을 일으킨 다음 1941년에는 태평양 전역에 까지 전단을 펼쳤다. 그 결과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서 방대한 양의 물자와 함께, 兵力, 人力이 요구되었다. 특히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는 막대한 양의 人力이 필요했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제는 우리 동포를 강제 동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시기는 1939년에서 시작되어 1945년 8·15에 까지 이른다. 그리고 1942년 1월까지는 그래도 모집의 형식을 취하여 노동인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부터는 총독부, 곧 軍과 官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우리 청장년들을 연행해가는 폭거를 일삼았다. 특히 1944년 9월부터는 國民徵用令에 의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人力을 장소와 시간, 개인의 정상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포악한 방법까지가 사용되었다.¹⁷⁾ 이들은 대개가 군사시설을 만들기 위한 土木工事, 석탄 및 각종 광산, 그리고 전투장, 일선에 까지 투입되어 전재 복구와 무기탄약 수송운반을 위한 육체노동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 역시 떨리는 중국 대륙과 태평양의 여러 도서, 일본의 최북단인 나호트카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이 日本 本土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1939년 일본내의 한국인 노동자수가 53,120이었던 것이 1942년에는 그 배인 119,851명이 되고, 다음 해에는 128,354명에 이르렀다.¹⁸⁾ 또한 그 부수 현상으로 제일 한국인의 숫자 역시 다음과 같이 늘어났다.¹⁹⁾

年 度	居 住 人 口	增 加 人 口	被 用 動 員 數
1939	961,591	161,726	38,700
1940	1,190,444	228,853	54,944
1941	1,469,230	278,786	53,493
1942	1,625,054	155,824	112,007
1943	1,882,456	257,402	122,237
1944	1,936,843	54,387	280,303
1945	不 明	不 明	(160,427)

1945년도에 이미 일본 본토는 美軍의 포격과 폭격에 의해 초토가 되어 갔다. 식민지의 사람이 아니라 전쟁 당사자인 일본인들 조차도 그것을 견디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태가 닦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日帝는 무고한 우리 동포를 16만 이상 강제 연행했던 것이다. 8·15가 되고 나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중 50만 정도는 그

17) 상계서, p. 33.

18) 朴慶植, 전계서, p. 59.

19) 玄圭煥, 전계서, p. 460.

릴 능력마저 없어 日本에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었다.²⁰⁾ 終戰 직후 日本은 침략전쟁을 치른 나머지 경제사정이 극악한 상태였다. 그런 틈서리에 끼여서 우리 동포는 문자 그대로 밑바닥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南北分斷과 미·소 양대진영이 불러일으킨 이데올로기 투쟁이 야기되었다. 특히 左派는 終戰이 되자 매우 기민하게 在日 朝鮮人連盟을 조직하여 다수 교포들을 그 조직에 가담시켰다. 그리고 그보다 한발늦게 민족진영계의 在日 朝鮮人居留民團이 발족했다. 이 두 단체는 외지인 日本에서 사사건건 反目을 일삼았다. 특히 左派의 朝連은 그 행동노선으로 하여 戰後 日本의 관리자로 등장한 美軍政 當局에 맞서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하여 자주 군정당국의 규제·탄압을 받았다. 또한 1951년 새롭게 발족한 日本政府와의 관계 역시 그 연장 선상에 있었다. 우리 교포들의 이런 분열 상은 그 후 日本政府와 民間인들이 그들의 식민지 정책 희생물인 우리 교포를 차별, 배척하는데 중요한 빌미로 작용했다. 지금 日本의 한국인 교포들은 日本人들에 비해서는 물론 다른 外國人들, 곧 歐美人들이나 中國人들에 비해서도 심하게 멸시, 하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北美洲의 교포나 中國 거주 교포들과도 뚜렷하게 대조가 될 정도이다.

日本人들의 민족적인 편견은 위로는 정부의 고위직 종사자들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시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까지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가령 1961년 당시의 文部大臣 荒木는 공석상에서 거침없이 <劣等民族은 先祖들이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우리가 朝鮮人이나 美國의 土人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라고 했다.²¹⁾ 또한 국민학교 재학생들에게 한국인을 제재로 감생문을 쓰라고 한 결과 그 가운데 어떤 학생은 다음과 같은 글을 제출했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청결하지 못하다 한국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로 집도 草家로 되어 있고 냇가에서 뽕뽕을 한다. 한국인들은 산 벌레를 먹는다고 들었다. 웬지 原始的이고 이상한 기분이 든다. 한국인은 이웃집 변소를 쓴다고 한다. 이것은 치우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²²⁾

3. 作品에 나타나는 의식성향

이 작업의 대상이 된 네 개의 지역에는 뚜렷이 들어나는 변별적 특징이 있다. 그것이 곧 이데올로기상의 차이이다. 中國의 연변지역과 함께 중앙 아시아의 교포사회가 극히 최근까지 東歐圈에 속해온 사실은 새삼스럽게 지적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에 반해서 北美洲와 日本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자유로운 언론과 행동이 허용된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사

20) 李光奎, 전게서, p. 45

21) 孟哲輝, 在日韓國人의 人格形成, 和氣清一(편), 《행복은 어느때나》, p. 69.

22) 旗田巍, 《日本人의 朝鮮觀》(東京, 1974), p. 74

회주의 체제하에서 산 경우에는 그 詩와 소설들이 대체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긍정, 내지 예찬하는 쪽이다. 그에 반해서 北美洲와 日本에서 거주하는 詩人, 作家들은 그와 무관한 입장에서 작품을 쓴 단편을 들어낸다.

1. 구 소련 거주 교포작가들의 의식성향, 《시월의 햇빛》의 경우

구 소련에서 우리 교포들이 민족의식이나 文化傳統을 지키는 일은 지극히 어려웠다. 레닌에 이어 정권을 잡은 스탈린은 의도적으로 소련 방내의 소수민족을 무력화, 말소시키고자 했다. 이런 사정은 우리 교포의 강제 이주 구실이 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끄치지 않았다. 스탈린은 우리 교포들을 沿海州에서 강제 이주시킨 명분을 만주쪽의 日帝가 침투할 가능성 제거라고 내세웠다. 그렇다면 日帝가 무조건 항복을 한 8·15와 함께 우리 교포는 沿海州의 옛 터전으로 복귀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이 원상복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1937년 이후 中央 아시아의 우리 교포들은 母國인 한반도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 8·15와 함께 38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했다. 그들의 비호로 북쪽에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人民政權이 선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건국 초기의 바쁜 정치적 일정 탓이었는지 中央아시아의 우리 교포들에게는 거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다. 양자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면 이 지방 출신의 몇몇 당료와 文化分野 일꾼들이 북한의 각급 당과 행정기구의 조직 지도 사업에 참여한 정도다. 그 구체적 보기가 되는 것이 許가이, 趙芒天, 鄭尙鎮 등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 아시아의 교포사회는 母國에서 멀리 떨어진 孤島였다.

그러나 이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이 지역 교포들은 매우 끈질기게 민족적 자아와 그에 바탕을 둔 습속과 전통, 말과 글을 지키려고 시도한 듯 보인다. 지금 러시아에서 교포로 文化, 教育科學 등 지적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다. 그들은 또한 민족문화의 수호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극장을 갖고 있으며 신문과 출판사도 운영하는 중이다. 특히 이 지역 교포들은 모국어로 작품활동을 하는 시인, 작가의 조직기구인 알마아따 작가협회도 갖고 있다. 여기서는 10월 혁명 50주년 기념 출판으로 조선인들의 사회집인 《시월의 햇빛》을 간행했다.

이 작품집에는 趙明熙, 趙基天 등의 詩, 김기철, 리정희, 한상욱 등의 소설과 함께 채영의 희곡이 실려 있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계급투쟁의 선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비에트의 체제를 찬양, 옹호한 것들이다. 가령 이 작품집 허두에 실린 조명희의 〈시월의 노래〉는 〈깃발힌 무리의 홀린 피 방울방울이/지심으로 홀리, 홀리 폭발이 되어/새화산, 새 세기의 화산이 솟았다.〉로 시작한다. 여기서 〈새 세기의 화산〉은 물론 볼셰비키에 의해 창건된 러시아의 노동정권을 가리킨다. 이 작품은 볼셰비키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주의적 건

설을 다음과 같이 열면 목소리로 외친다.

우리의 손이 망치를 잡았고
 우리의 발은 바퀴를 굴린다.
 우리에게 어깨에 총이 매여 있고
 우리의 머리 우엔 새 태양과 함께 과학이 빛난다.
 이리하여 우리의 건설은 쉬일 날이 없고
 우리의 무장은 원썩을 물리치고야 만다.
 망치여 더 힘 있게 내려 치라!
 바퀴여 더 빨리 굴러라
 태양이여 더 빛나게 내리 쏘이라!
 우리의 걸음은 한시가 급하고
 우리의 팔다리엔 힘 줄이 된다.
 우적 <앞으로> <앞으로>²³⁾

趙明熙나 趙基天 등이 민어 의심치 않은 이데올로기가 불세비키의 혁명이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재러시아 한인교포의 작품에 위와같은 의식의 단면이 검출되는 일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함께 러시아 거주 우리 교포 작가들에게도 우리 민족만의 몫으로 이야기될 세계와 감정이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에는 그런 자취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진동혁의 한 작품은 그 좋은 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보초병—
 전투적 사명을 걸머진
 쓰베트의 보초병!
 푸른 하늘에 별들이 속삭이고
 난조각 흰달이
 밤길을 걸을 때
 재운층 괴여들고
 무거운 발 굳게 움기며
 귀기울여 발자취 엿듣고
 눈 찌프려 그림자 살핀다.
 (……………)
 누구나 탐낼 쥘리 없는
 신성한 우리 재물
 진드릴 늪 누구더냐
 쓰베트 보초병의
 냉정한 탄환
 가슴에 품은 줄
 알아 두어라!

23) 《시월의 해빛》(알마아따 작가 출판사, 1970), p. 4.

소비에트 정부야, 굳게 믿으라!
 네 땅 위에 있는 것이면
 들 쪼각, 흙 한 줄까지도
 죽음으로 죽음으로
 지키리라!
 나는 보초병—
 전투적 사명을 걸머진
 소비에트 보초병
 —〈보초병〉²⁴⁾

이 작품의 쓰임을 보면 그 제작연도가 1934년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아직도 스탈린이 우리 동포를 강제 이주 시키기 이전이다. 물론 로농정권이 들어선 후 러시아에서는 모든 시인·작가의 작품 활동을 심하게 규제했다. 그들은 모든 작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와 행동 논리를 옹호·찬양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 서술이었으므로 이 작품에도 그에 대한 의식이 반영되었을 공산이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명하기까지 러시아 거주 우리 시인과 작가가 소비에트 러시아 예천만을 하도록 강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는 그 무대설정에서부터 사상내용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무 지나치 다고 할 정도로 소비에트 러시아적 내용과 가락·말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2. 中國 朝鮮族 文學의 경우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국의 朝鮮族 文學은 구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구 소련의 한국교포들이 쓴 작품은 아주 경직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복사판이었다. 그러나 연변자치주를 중심으로한 중국내의 우리 교포가 쓴 작품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가령 金學鐵의 작품 〈해란강아 말하라!〉는 이런 경우 좋은 보기가 된다. 이 작품은 3부작으로 된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립장검, 한영옥, 허련화 등이다. 이들은 이른바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반제, 반봉건투쟁을 벌인다. 그들에 대항하는 적대인물은 박승화, 최원갑 등이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들이다. 그 무대는 연변, 연길현 해란구인데 한영수와 립장검등은 침략자와 그 앞잡이에 맞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는 용감한 계급주의자들이다. 제 1부는 주인공들이 계급의식에 눈을 뜨는 다음, 대중 속에 조직을 이루어서 추수투쟁을 벌이는 모양들을 그렸다. 제 2부는 적대계급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강화되어 무장투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묘사되었다. 이 부분에 나타나는 중요 사건이 춘향 투쟁이다. 제 3부는 일종의 지역투쟁, 농민투쟁에서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조직활동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국면이다. 여기에서는 동만의 항일투쟁

24) 《시월의 해빛》, p. 68.

이 전국적인 규모의 유격전과 연계되는 과정이 그러했다. 그리고 실제 전투 양상으로 한차례의 항일 유격전이 벌어진 다음 그나름대로 전구를 형성하면서 광범위한 무장항전이 전개되는 과정이 다투어졌다. 이 부분에서 중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 왕우구 유격근거지 설정이다.

이 작품은 두 가지 의미에서 민족적인 자아에 입각한 것이다. 이 작품의 무대는 물론 연변이라는 중국 동북성의 한 지역이다. 그러나 그 등장인물들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조선족이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 역시 전적으로 그에 준한다. 또한 이 작품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는 것은 9·18 사변이다. 9·18사변이란 연변자치주에서 발행된 문헌에 따르면 1932년에 있었던 항일저항 투쟁을 가리킨다. 그 이전 일제는 東北三省을 침략한 다음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만주 일대, 특히 남부 만주 일대에 사는 우리 동포들 사이에는 널리 계급사상과 전파되어 있었다. 그것을 근간으로 조선족과 그 외곽 세력인 중국인민들이 반제 항일의 기치를 든 것이다. 日帝는 이에 대해 가혹한 탄압, 학살로 맞서 1932년 한 해만도 연변 지역에서 4천명의 군중을 학살했다. 그리고 연길현 해란구에 대해서만 94차의 토벌을 감행하여 1천 700여명의 혁명가와 대중을 살해하였다는 것이다.²⁵⁾ 9·18 사건이란 그런 투쟁과 학살이 절정에 이른 순간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제재를 다룬 작가의 의식과 의도 자체가 아주 짙게 민족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러시아 쪽의 우리 교포들이 쓴 작품과 이 작품을 대비시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단편은 詩의 경우에도 그대로 검출된다.

이른봄 간설 우에 타오르는 남향
진달래는 봄이외다

수수한 옷차림에 들로 온 누나
진달래는 웃음이외다

산에 나서 산에 누운 아버지
진달래는 님이외다

리별에 울고 상봉에 목이 멘
진달래는 인연이외다

가난에 떨고 강풍에 머리 든
진달래는 력사이외다

세월들 이어 하늘 땅에 피뿌린
아 진달래는 노을이외다.

—김성휘, <진달래>²⁶⁾

25) 《조선족략사》, pp. 100-101.

26) 《천지》(1990. 7), p. 15.

이 작품의 주제적이 된 소재는 물론 진달래다. 그리고 이 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이 가장 빈번하게 기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자 김성휘는 그것을 <산에서 나 산에 누운 아버지>라든가 <가난에 떨고 강포에 머리든>과 같이 노래했다. 그것으로 비록 만주땅에 흘러 들어갔으나 넓은 들판 기름진 땅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고 착취와, 핍박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의 한 모습이 일체화된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핍박받고 궁핍하게 살지만 의롭지 못한 지배자에게는 머리를 치켜 들고 싸울 줄도 아는 자, 곧 계급의식의 불씨를 가진 인간상도 그 바닥에 깔려 있다. 즉 여기에는 계급의식이라는 사회주의 문학의 대전제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러시아의 교포 문학에서처럼 교조적으로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연변 중심의 중국 교포문학이 갖는 이들 변별적 특성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사유를 대충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中央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후의 러시아 교포들과는 달리 중국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부단히 본국과 來往이 이루어진 곳이다. 초기에는 金澤榮, 신정, 申采浩 등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나름의 작품을 발표했다.²⁷⁾ 그런가 하면 日帝의 강점기에도 만주 쪽에는 상당수의 교포 작가들이 그곳에서 활약했고 또한 작품집도 내었다. 그 뚜렷한 이름이 金達鎭·柳致環·金北原 등의 시인과 함께 姜敬愛, 朴啓周·安壽吉 등의 소설가다. 이들은 국내 문단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도 작품집을 발간하고 동인 활동도 했다. 그 단적인 보기가 되는 것이 동인지 체제로 발간된 《北鄉》이며 《在滿朝鮮詩人集》과 朴啓周·安壽吉 등의 작품 활동이다. 이들 시인과 작가들은 대개 8·15를 전후해서 本國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직접, 간접으로 中國의 조선족문학에 밀거름이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 쪽 교포문학과 달리 이들 文學이 本國文學과 유대관계를 잃지 않았음을 뜻한다.

다음 또하나의 사유로 손꼽아야 할 것이 中國 조선족작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전통감각 같은 것이다. 러시아 쪽 교포들은 그들 文學의 역사를 趙明熙부터로 잡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우는 그 연대가 거슬러 올라가고 작가의 이름도 크게 불어난다. 연변에서 간행된 문학사를 보면 그들의 文學이 국권회복을 위한 反帝抵抗文學에서 시작되었음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그 실례로 李相龍의 科學社 취지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⁸⁾ 또한 여기에는 이태올로기의 테두리밖에서 작품을 쓴 金澤榮이나 申采浩, 尹東柱 등의 작품도 평가되었다. 결국 러시아 교포와 달리 中國교포의 문학활동은 예술성에 대한 배려도 가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역시 中國 朝鮮族 文學이 러시아 교포 것과는 다른 특질을 이룬 원동력이 된 것이다.

3. 在日 교포문학의 경우

日本の 우리 교포들은 일찍부터 개방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이 지역은 정치, 또는 지리적

27) 《조선민족문학사》(연변인민 출판사, 1991), p. 5.

28) 상계서, pp. 24-25.

여건으로 보아 南쪽과의 來往이 더 손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상당수의 구성원이 日帝에 의해 강제연행, 使役, 당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연유한 까닭으로 左派에 가담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南쪽 편인 右派와 左派는 처음부터 참여한 대립을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양쪽에 대해서 다같이 비판적 입장을 취한 中間派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 면으로 보면 在日僑胞은 세 派로 구분된다. 이런 현상은 文學作品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① 朝總聯系 文學의 경우

지금 在日 韓國人들의 左派 세력을 지도 통괄하고 있는 대표조직은 조총련이다. 이 단체는 본래 左·右派가 함께 참여 한 朝連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²⁹⁾ 그러나 그 후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左派들이 그 조직을 장악했고 이어 맥아더 司令部가 해산을 명했다. 그 후 이 조직은 강경파 金日成路線 추종자들에 의해 주도권이 장악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朝總聯은 완전히 北쪽의 행동노선과 그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굳어졌다. 그들의 文學 역시 교조적으로 北쪽의 행동이념을 형성화한 것들이다. 그런 자취는 그 소속원들 모두에게 두루 나타난다.

이런 경우의 좋은 보기가 되는 것이 金石範의 <觀德亭>, <火山島> 등이며 許南麒의 詩集 <朝鮮冬物語>다. 金石範은 <觀德亭>에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게릴라 활동을 다루었다. 여기서 그는 한국의 군경이 한라산 깊숙히 숨은 게릴라들을 불러내기 위해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내어 <귀순하라, 항복하라>고 소리치게 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육친을 박해하는 일에 견디지 못해 투항하는 게릴라를 모조리 학살한다고 썼다.

권력은 그들을 석방하지 않고 경찰서 앞 광장을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날 죽창 끝에 同志의 목을 꿰어 들게 하고 진흙창을 행진하도록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행진 뒤 모조리 사살해버리는 것이다.³⁰⁾

이 작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게릴라의 적인 한국 군경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다. 전국을 전후해서 한국 군경이 남로당계의 무장 게릴라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원칙적으로 투항하는 게릴라는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방침이었다. 물론 수없이 되풀이된 토벌작전 가운데는 그 예외로 투항자를 사살한 예가 없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선 부대간의 일으킨 탈선 행동이었지 그것이 곧 한국 군경 전체의 태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예외만을 이끌어내어 그려낸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이 곧 朝總聯系 作家들의 南쪽에 대한 생각이며 관점을 나타낸다.³¹⁾

29) 李光奎, 《在日韓國人》, p. 48.

30) 金石範, 제주도 四. 三무장봉기에 대해서, 《三千里》(3) (1975. 8), pp. 105-106.

31) 단 金石範은 한동안의 朝總聯 참여를 그 후 청산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金達壽, 李進熙, 朴慶植등과 함께 朝總聯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적 현실을 이해파악하려 시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許南麒의 경우에도 그대로 가능하다. 詩集 허두에서 그는 자신의 작품이 1947. 8. 9年代의 한국을 노래했다고 밝혔다.³²⁾ 그런데 그의 시집을 보면 거기에는 한반도 내의 모든 곳에서 日帝 잔재를 읽고 있으며 한국정부 자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게 한국정부는 인민을 억압하는 전체 조직기구로 파악되었다. 가령 〈지금 나는〉은 그 허두가 〈지금 나는 신문을 읽는다〉로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한국·주재의 외국통신기자 틈 누구가 보낸 외신을 게재한 기사를 읽는 것이다. 그 기사는 〈밋손 스킨 옥상에 아직도 銃火에 타다 남은/人民共和國 旗가 걸려 있고〉로 이어진다.

그리고
 22명의 포로의 시체와
 그 시체의 가슴위에
 굳게 걸어진 망치와 낫의 그림이
 조그만 네모 천에 인쇄되어 있었다는
 그 기사를 읽고 있다.
 (……………)
 오랫동안
 우리의 군대가 쫓기하던
 누구 보다 저빨리 그 선두에 서서
 훌륭한 원고지 대신
 마분지를 손에 들고
 잉크 대신 鉛筆을 침으로 바르며
 人民을 위해 시를 쓰고
 解放을 위해 노래하리라 맹세한
 이 내가 앉은채로 신문을 읽는다.³³⁾

여기에는 1948년에 일어난 여수, 순천의 12연대 반란사건이 전폭적으로 지지, 찬양되어 있다. 화자의 이데올로기는 로동정권의 상징인 망치와 낫을 쥐고 죽은 사람들을 노래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의 화자는 그들과 함께 싸워서 죽기를 기하는 사람 처럼 보인다. 참고로 이 작품의 작자인 許南麒의 이력을 보면 그는 1918년 경상남도 출신이다. 부산 제 2 상업을 거쳐 일본대학 예술영화과와 中央大學校 法科를 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을 쓸 당시에는 神奈川 朝鮮人中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³⁴⁾ 이런 이력서 사항은 그의 세계를 매우 경직되게 만든성 보인다. 공산당이나 그 외곽단체 조직원의 의식성향으로 보면 여순사건이 人民의 쫓기로 평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란군과 일부 동조자들도 반드시 의로운 일만을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수의 무고한 市民들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납치, 고문하고 폭행, 학살했다. 그럼에도 이 詩集에는 그런

32) 《朝鮮多物語》(靑木書店, 1952), p. 2.

33) 상계서, pp. 22-23.

34) 상계서, 末尾, 版權欄.

사실들이 모두 美化, 예찬되어 있을 뿐이다.

② 中間派 또는 전향문인의 경우

조총련은 그 행동노선이 해가 거듭되면서 강경일변도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북쪽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책 대행기관으로 끝바꿈하게 되었다. 이에 회의를 느낀 일부 조총련계 인사는 조직을 탈퇴했다. 그 대표적 보기가 되는 경우가 金達壽·金石範·朴慶植·李進熙 李哲 등의 경우다. 이들은 조총련에 등을 들렸지만 그 행동방향이 그대로 남쪽을 향해 180° 선회한 것은 아니다. 그들북은 쪽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과 동시에 대한 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鄭承博의 〈龜裂 뒤애〉의 주인공 〈나〉는 어려서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이민 해온 사람이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 후에 이어진 혼란, 본국의 이데올로기상 강경정책에 따라 그는 그후 가족의 안부도 모르는채 낮은 땅에서 혼자 살아 나갔다. 그러자 한국에서 지난날의 허물을 불문에 붙이고 고향에 다녀가는 길을 트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고향 아우의 이름으로 긴 편지가 온다. 그는 고향과 아우가 그리운 나머지 곧 本國방문의 수속을 밟는다. 그런 그에게 한국방문 사무의 대행 기관인 民團은 아주 불친절하다. 화가난 주인공은 民團쪽 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日帝時代에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헤어진 아우를 한번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民團 녀석들은 무언가, 꼭 옛날 特高 같은 것이 아닌가.³⁵⁾

이렇게 말한 주인공은 그 후 갖가지 애로를 무릅쓰고 釜山에 도착한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비를 여행 안내원에게 사기 당하고, 검문 경관에게는 수고비 조로 얼마를 빼앗긴다. 결국 이 작품에서는 재일교포들을 맞이해 들인 한국이 부정적 요소로 가득찬 것으로 비판된 셈이다.

그러나 이들과 조총련계 文學 사이에는 뚜렷이 드러나는 변별점도 있다. 조총련계의 시인이나 소설가가 이데올로기를 빼고 순수하게 母國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李哲의 作品은 그와 크게 다르다.

헤거름을 누비는 마음 속 외로움 속에 깃든
태어난 땅의
못내 끊기 어려운 磁力의 그것에 이끌리어
거리의 응변에는 귀도 기우리지 않고
늙은이 혼자 오늘도
메아리 없는 허공을 바라다
가이 없이
뻗쳐 있는 하늘을 바라다.³⁶⁾

35) 《三千里》(1977. 7. 1), p. 240.

36) 李哲, 歸心, 《三千里》(1977. 11), p. 107.

그 앞자리를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인 늙은이는 80세의 노인이다. 그는 60년 이국의 서늘한 동경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문맥에서 유추되는 바 그는 고국에서 뼈를 묻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더욱 절실한 생각으로 태어난 땅을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런 文脈으로 보아 이 작품에는 적어도 이데올로기 일체의 입장으로 쓰인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순수한 망향의 정도 가진 것이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文學인 셈이다.

③ 親韓系, 또는 自由主義文學人들.

일본 교포의 친한파 조직은 물론 民團이다. 그러나 이 조직 역시 부분적으로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친한계라고 하여 다 이 조직에 모두 참가한 것은 아니다. 가령 한 때 일본에 체류하면서 詩를 쓴 시인에 「文章」 출신인 李漢稷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民團에 참여 하지 않으면서 日本에 거주했다. 또한 교포 출신의 작가 가운데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입장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에만 힘쓴 경우가 있다. 그들의 의식 세계는 초이데올로기, 내지 예술 일체의 단면을 들어낸다. 이런 경우의 우리에게 좋은 보기가 되는 것이 李良枝다. 이 작가는 이민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早稻田大學을 다녔고, 1980년도 부터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 《由熙》는 1988년도 芥川賞을 받아서 日本文壇에 그 수준을 평가 받은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 유희는 李良枝 자신과 비슷하게 재일교포 2세다. 그런 그녀는 어느 시기에 자신이 한국인임을 깨닫고 뿌리를 찾기 위해 本國에 유학을 온다. 처음 그녀는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국어를 익히려 고 든다. 그리하여 그는 S대학 국문과에 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렸을 때 부터 말하고 들은 일본어가 더 직접적이었다. 그녀와 그녀에게 친절한 주변 사람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유희는 끝내 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 소설은 그런 유희가 동경으로 돌아간 다음 화자인 <내>가 그녀를 생각하며 그 말을 되새기는 것으로 끝난다.

—아인지 아니면 애인지 아라면 아야 어여하고 계속되는 지팡이를 잡아야 하지만 애하면 あいうえお로 계속되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아인지 애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일이 없어요. 언젠가 늘, 점점 알 수가 없어요,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³⁷⁾

이런 회상을 통해 화자는 유희로 집약된 재일교포 2세의 아픔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것이 곧 모국의 딸, 그것으로 표상되는 습속, 전통에 스스로를 일체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 아픔이다. 이것은 日本의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日本의 교포문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에 속하는 작가 의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작품 세계는 다른 유형에 속하는 재일교포 작가들의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37) 李良枝, 《由熙》(삼신각, 1988), p. 87.

4. 北美洲의 교포문학

그 구성인원의 지적 수준으로 보면 北美州의 교포문학은 상당히 높다. 가령 이 지역에서 활약하는 교포문학인 가운데는 김용익, 이학수, 유병천, 高遠, 朴異汶, 金恩國, 朴南秀, 李哲範, 馬鍾基, 宋瑛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한 때 國內에서도 그들 나름의 문단 위치를 확보한 경력의 소유자다. 또한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대학의 교수로 재직할 정도로 높은 학력·전공분야에서도 착실하게 자기 위상을 다진 사람들이다. 이들 문학은 다른 지역의 교포문학에 비해서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도 가진다. 그 하나가 탈이태올로지 성향이라면, 다른 하나가 매우 강하게 보편성·일반성을 추구한 단면이다.

구체적으로 金恩國의 《순교자》는 한국전쟁이 무대가 된 작품이다. 주인공의 한사람인 <나>는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CIC의 정보 장교로 평양에 진주한다. 그는 거기서 공산군이 후퇴 때 목사들을 연행·처형한 사건을 떠맡게 된다. 모두 열네명이나 되는 연행 목사 가운데 열두명은 비참하게 처형당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목사와 한목사만이 생존자였다. 그러나 한목사는 너무 끔찍한 체험을 한 나머지 발광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남은 자는 신목사 한 사람 뿐이었다.

군정보부에서 그를 이용하여 열두명의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학살에 관계한 정치 보위부 장교 하나가 잡힌다. 그의 입을 통해 열 두목사는 모두 신을 부정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한 사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때까지 배신의 댓가로 목숨이 건져진 것이 아닌가 의혹이 걸린 신목사의 행적도 들어 난다.

정치 보위부 장교인 정소좌에 의하면 처형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힌 것은 신목사 뿐이었다는 것이다. 정소좌는 그의 당당한 태도에 매력을 느껴 처형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결국 군당국에서 발표 한 순교자와 배교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린 셈이다. 이대로라면 신목사야 말로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신을 섬긴 순교의 보기였다. 그럼에도 신목사는 대중 앞에서 열두 목사가 순교자이며 자신은 총칼 앞에 무릎을 꿇은 비겁한 배신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진상을 알고 그것을 따져 묻는 <나> (이 대위)에게 더욱 엄청난 고백을 한다

「나는 늦게 결혼했소」

그는 말했다.

「첫 아들을 물어버린 그해에 아내를 물었소. 아내는 아이가 죽은 지 몇주일 후에 죽었지요. 병이든 겁니다. 아내는 아이를 잃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면서 굶고 기도만 드렸소. 그래서 나도 슬픔에 병이 들었소. 그렇지만 난 여기서 살아야 할 의무를 느꼈고 아내는 고집을 피웠지요. 그래서 이 생애에서 내세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잘라 말했소. 불행한 내 아내, 공포에 질린 내 아내는 그런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런 끔찍한 진상을 듣고서도 살아갈 만큼 강인하지 못했소. 아내는 내세에 잃는 자식을 만날 수 있으리라라는 희망과 기약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요. 아내는 산 송

장이 되어 절망속에 죽었소.³⁸⁾

이것은 화자인 <내>가 신목사에게 신이 있다면 왜 무고하게 목사들을 죽게하며 악의 무리를 그대로 두는가를 캐어 묻자 그에 대한 답변격으로 한 말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작품에서 순교자란 하느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경우에 이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인간을 실존적 각도에서 문제 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실제 이 작품 허두에는 이런 의식의 단면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 책을 알베르, 까뮈에게 바친다. <이상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그의 통찰은 나로 하여금 韓國의 참호와 더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³⁹⁾

《순교자》의 작가가 의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반기독교라든가 서투른 인간주의가 아닐 것이다. 그는 실존주의 문학의 맥락까지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참다운 존재 문제를 이 작품에서 다루고자 했다. 이 비슷한 단면이 재미교포들의 다른 작품들에도 검출된다. 朴異汶의 <The Shadow of a Candle>는 인간을 등불에 비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등불은 어둡고 침침하여 보이지 않는 存在의 밤에 서로를 보게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등불은 우리에게 어둡신한 그림자를 던진다. 그에 이어 인간인 우리가 다음과 같이 노래되어 있다.

Born to cry, to hate and to love,
to be transparent, to think
and to write down something unintelligible,
and to die,
to return into the dust.

Our reason and our thought,
our value and our hope,
our cries and our joy
go with the wind like
elements, like
unintelligible foreign languages.⁴⁰⁾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이 마지막 연이다. 여기서는 실재하는 모든 것이 덧없는 것으로 노래되어 있다. 어느 의미에서 이것은 生成한 모든 것이 사라져서 허무로 화한다는 불교의 의식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물리적 차원이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次元, 곧 관념 내지 형이상상의 차원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재미교포의 文學에는 잡담 제하는 태도로 기법을 살리고 현대적 차원을 구축하려 든 단면 역시 강하게 나타난다.

38) 張莊錄(역), 《순교자》(三中堂, 1965), p. 311.

39) 전계서, 허두부분.

40) 《미주문학》(7) (1989. 2), pp. 79-80.

하늘에서 반짝이는
 대낮의 별처럼 반짝이면서
 멀어져 간 이별은
 실로 어처구니 없게
 우리 목전에서 機首를 쳐들었다.
 이별하기 까지의 수속은
 아직 인간의 냄새가 났지만
 한번 지상을 박차는 그 순간은
 실로 어처구니 없게
 直截한 것이었다
 인류의 소리를 모두 합친 것만치나
 큰 통곡을 하고
 몇번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이륙하는 그 순간은
 非 유우크리트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쾌청한 하늘에서
 반짝이는 대낮의 별처럼
 기체를 은빛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이별은 실로 어처구니 없이
 쾌적한 것이었다.

—〈김포별곡〉⁴¹⁾

이 작품은 물론 단독 서정시다. 그 제재는 母國을 떠나는 화자를 태운 항공기가 이륙하는 순간 맛본 감정이다. 母國을 떠나는 일, 곧 이별을 아쉽다든가 서글프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신문기사거리도 되지 못하는 감정의 토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이 작품은 심상화시키기 위해 항공기의 이륙하는 모양으로 대체시켰다. 항공기의 요란한 발동소리는 통곡으로, 그리고 이륙 순간의 진동은 몸부림으로 의인화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맑은 하늘에 뜬 비행이 〈기체를 은빛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별의 정은 아주 선명한 심상이 된 셈이다. 이런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한편의 시를 깔끔하게 만들고져 한 마음일 뿐이다. 이처럼 이들의 의식은 철저하게 詩的인 동시에 匠人 기질에 입각해 있다.

4. 現地調査, 또는 單純讀者의 의식과 결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中國의 연변지역과 日本 및 러시아 그리고 美洲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작품을 검토하면서 그 의식성향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방법은 주로 직업적인문인, 전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류의 의식성향 파악은 이 밖에도

41) 《在美詩人詩選集, 바람의 고향》(汎友社, 1986), pp. 106-107.

단순독자, 곧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작업은 애초 이에 대한 계획 역시 세워 놓았다. 조사대상 지역으로는 中國 延邊地域과 함께 日本의 西部地域을 택해 보았다.

여기서 연변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택해진 까닭은 별 것이 아니다. 그곳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조선족 자치주로 우리 문학작품을 읽을 독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서부지역을 택한 까닭은 그와 조금 달랐다. 독자층 형성의 여건으로 본다면 日本의 경우는 西部地域보다 東京이나 大阪, 京都의 경우가 훨씬더 좋은 곳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곳은 교포의 거주지와 母國을 文化上의 等差로 살피고져 한 이 작업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작업은 日本의 조사 대상 지역을 福岡과 廣島地域으로 잡아 보았다. 우선 福岡地域이란 여기서 長崎, 佐賀 등 지역을 아울러 포함한다. 이 지역의 우리 교포들은 대개 노동이민이나 강제 징집자들 출신과 그 2세대들이다. 외국인 등록자수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수가 약 5만 정도에 이른다. 또한 廣島地域이란 岡山, 山口, 德島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의 교포들 숫자 역시 5,6만 정도로 나타난다.⁴²⁾ 그 대부분은 福岡地域과 비슷하게 노동이민, 내지 강제 징집자 출신들이다.

조사방법은 일정 양식에 의한 설문지를 돌려 그것을 모아 분석, 검토하는 길을 택했다. 설문은 8개 항목에 걸친 것이었고 그 내용은 별첨한 바와 같다.

이 조사를 위해서 필자 자신이 한 차례 연변지역을 방문했다. 그리고 日本은 전후해서 두 차례 현지 여행을 한 바 있다. 현지 조사를 위한 필자의 中國旅行은 1990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 동안에 걸쳐 있었다. 이 기간에 上海를 거쳐 현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연변대학 조선어문학과와 權哲, 徐日權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그 때에 내 조사 취지와 설문 내용을 설명했고, 또한 예비조사로 일부 교포를 만나 면담도 해보았다. 그 후 설문지 200매를 徐日權교수에게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송해 주도록 부탁해 두었다. 徐교수는 내 소청을 잘 들어 주어서 그 후 친절하게도 187매의 설문지를 모아 내 앞으로 우송해 주었다. 그것이 1991년 9월달의 일이다.

또한 내 일본 여행은 1991년 8월과 1992년 7월 두 차례 이루어졌다. 첫번째 여행에서 나는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일종의 예비 조사를 했다. 즉 東京과 大阪, 그리고 廣島에서 교포들을 만나 몇사람에게 설문지를 보였던 것이다. 그 결과 東京, 大阪 등 지역은 단순 독자 의식을 조사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 두번째 日本地域 조사 여행은 1992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나는 廣島와 福岡地域을 답사했고, 또한 설문지를 배포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民團측 사람과 함께 개인사업을 하면서 내 조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朴璣子양을 만났다. 그리하여 설문지 300매를 그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일본 측 설문지는 207매가 돌아왔다. 또한 이 이외에도 福岡縣 飯塚市民團支部長 朴正明氏가 51매의 설문지를 수거해 주었다.

42) 李光奎, 전계서, p. 79에서 재인용.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연변이나 日本 양쪽 다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2번 문항에서 요구한 詩人과 小說家 3名을 다 들지 못했다. 또한 間島에서 나서 福岡 刑務所에서 절명했고 다시 間島 땅에 묻힌 尹東柱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차지 했다. 연변과 日本文壇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포작가의 이름을 든 사람들도 얼마되지 못했다. 이제 결과를 적어보던 다음과 같다.

1. 연변의 경우

우선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이 수필, 詩 순이며 평론도 몇 명이 있었으나 희곡을 든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 거주 교포의 경우에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 2문항에 대해서는 詩人으로는 金素月이, 그리고 소설가로는 최서해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조기천, 윤동주 등 詩人과 이기영, 조명희 등 소설가의 순서였는데 그 가운데는 신채호를 소설가로 손꼽은 예가 있어 뜻밖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신채호, 윤동주, 이기영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는 金澤榮의 이름도 쓴 이가 있어 이색적이었다. 4번 문항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趙基天의 〈조선은 싸운다〉 〈白頭山〉 등을 들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5번 문항에 대해서는 공란이 대다수였다. 그 가운데 趙廷來의 〈太白山脈〉을 든 예가 3명이있어 주목되는 일이었다. 6번 문항에 대해서는 詩人으로는 김성취가, 그리고 소설가로는 金學鐵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적혀 있었다. 7항에 대해서는 〈서시〉, 〈별헤는 밤〉의 순서로 응답수가 나왔다. 마지막 8항의 응답으로는 〈예술성과 민족성을 발굴하는 일에 힘써야〉, 〈인간의 진실을 그려야〉, 〈통일 염원을 주체로〉 등 각인 각색의 생각이 피력되었다. 그 가운데서 나이 22세 연변대학 조선문학부 3학년 재학의 여학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남, 북이 서로 욱하지 말고 혈육의 정으로 맺어 있음을 일깨우며 알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日本의 경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日本의 경우에도 1문항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가 소설을 손꼽았다. 그리고 2문항에 대해서는 詩人의 경우 金素月, 尹東柱, 韓龍雲 등이 그리고 소설가의 경우에는 李光洙, 蔡萬植, 金東仁의 이름이 열거되었다. 다만 극히 소수이기는 했지만 金史良과 崔仁浩, 李箱의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다. 3번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했고, 4문항에 대해서 비슷한 답들을 했다. 5번과 6번에 대해서도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3,4명 정도의 사람들이 崔仁浩와 李良枝의 이름을 들었고, 그런 경우에도 작품 이름을 든 예는 한 두 사람이었을 뿐사다. 7번에 대해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체 응답 중 〈序詩〉 한편의 이름이라도 든 것은 13명에 그쳤다. 또한 8번에 대한 응답도 20여명에

그쳐 연변지역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그 내용 역시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말 것> 정도여서 상식적인 말에 그치고 있었다.

日本 교포의 이와같은 응답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로 응답자의 교육 정도를 보면 최하가 중졸로 그 숫자는 두명에 그쳤다. 그 밖에 100명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그 학력을 밝혔고, 그 이외는 전문학교, 대학교 졸업자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나 文化生活 향유 능력도 日本 교포는 연변쪽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경우였다. 그럼에도 文學作品을 읽은 숫자는 연변 보다 훨씬 떨어졌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에 대해 1991년 8월 9일자로 발송된 民團 朴正明氏의 편지가 어느 정도 그것을 풀어 주었다.

이 地方 교포들은 一世代가 70세 이상인데 그대부분이 강제징용으로 渡日한 사람들로 대개가 文學作品을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2世, 3世들은 韓國語를 할 수 있는 者가 1%도 안됩니다. 사정이 이러니 다른 일은 집착하실 것으로 思料합니다.

결국 조사대상자가 된 대부분의 在日 교포들은 설문지를 받기까지 한국현대문학에 대해서는 전혀 듣고 본 바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칸을 빈채로 둔 채 나이와 학력만을 적어 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필자는 일종의 충격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일반 재외동포들은 우리 詩와 小說을 읽고 즐길 겨를도 얻지 못한채 목숨을 잇고 생활을 꾸려 가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치게 된 것 역시 이 작업이 얻어낸 수확이라면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핀 바에 따르면 일반독자, 또는 단순독자의 文學에 대한 의식성향은 자유 개방체제 속에서 산 경우 보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산 사람들이 더 경직되어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文化의 차이인지 또는 이데올로기 교육의 결과인지는 속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전문적 시인·작가의 경우에는 또 다른 단면이 들어났다. 구 소련과 中國 쪽의 시인·작가들과 日本, 北美洲 쪽의 文學人들이 母國에 대한 향수를 지닌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졌다. 그러나 日本·北美洲 쪽의 시인·작가들은 그것을 직접적인 말로 토로한 예가 없다. 그들은 모국에 대한 감정을 다소간 비틀어서 비유 형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 소련과 中國·교포의 경우에는 대개 진술 형태로 향수의 정이 토로 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文學을 한 사람들 작품에는 예외 없이 이데올로기의 즐거가 檢出되었다. 그들의 작품은 정치적인 주제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자본주의를 비판·공격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또한 이들의 상당수 작품은 그 배경이 日帝時代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예외없이 그 의식의 즐거가 日帝와 그 앞잡이들에 대해 강한 적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자유진영에 속하는 사회에서 산 교포들은 강하게 脫이데올로기의 단면을 들어낸다.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산 교포들의 작품은 상당히 길게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를 거느리고 있다.

1980년대 후반기 이후 우리나라는 東歐圈의 여러나라와도 國交를 갖게 되었다. 또한 中國과도 이제는 자유롭게 來往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그 쪽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母國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의식에도 적지않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自由陣營에서 산 교포들과 어느 정도 접근한 형태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母國인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다. 이 작업은 이런 또하나의 의문부로 끝을 맺는다.

.....

《부록》

설 문 지

1. 시·소설·희곡·수필·평론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양식은 어느 것입니까?
 답: _____
 2.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시인, 작가를 세사람씩 들어 주십시오.
 답: 시인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소설가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3. 일제치하에서 활약한 문학자 가운데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세사람씩 들어 주십시오.
 답: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4. 8·15 후 남쪽에서 발표된 작품 가운데서 감명깊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세 편 들어 주십시오.
 답: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5. 8.15 후 북쪽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읽은 것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답: _____
 6. 당신이 살고 있는 일본(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시인과 작가 중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시인, 작가의 이름과 그 작품을 적어 주십시오.
 답: 시인: _____
 작가: _____
 7. 시인 은동주의 작품 가운데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세 편 적어 주십시오.
 답: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8. 앞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통일조국을 위해서 문학의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_____
- 감사합니다. 다음 해당란에 답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응답자의 성별 _____ 연령 _____ 교육정도 _____
-

A Study of the Literary Consciousness of the Korean Residents Abroad.

Kim Yong Jik

1. Korean residents are found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Many of them live in the southern part of Manchuria, in Japa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Central Asia. Korean residents of these regions read their Korean literary work and speak Korean. This study has an object to analyse and examine their consciousness.

2.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in Russia have a tendency to maintain the current ideology. Especially, Korean writer's poems in Russia express socialistic ideology. But Korean writers in the free world select the themes freely For instance, Kim Eun Kuk living the United States wrote "The Martyr". In this work, he describes a pastor who defended the Church under a the oppression of the Communist Party. But the pastor did not believe in Christ.

3. To study the reader's interests of "Simple Reader", I investigated in Yun Byun, Fukuoka and Hiroshima. There are a number of readers that read North Korean literary works in China. But Korean residents in Japan mostly. do not read literary works Yoon Dong Ju was born in Yun Byun. He died at the prison of Fukuoka while studying in Japan. Korean residents in China answered that they had read Yoon's works. But only a few Korean residents in Fukuoka had read them. But all Korean residents abroad wished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Moreover, They look forward to reading a literary work that describes unification.